

“유럽부자들의 자산 오스뮴, 2017년 이후 두배 올랐다”[ER인터뷰]

이규희 오스뮴인스티튜트코리아 대표 인터뷰

이하영 기자 | 2024.08.30 00:00



이규희 오스뮴인스티튜트코리아 대표. 사진=김연정 이코노믹리뷰 객원기자

- 한국로도 큰일.. 1136회 1등 번호 "이벤주만" 공개!? "선착순" 증정!
- 로또 1135회, "용지 뒷면" 자세히 보니, 로또 1등 당첨번호 있어..!?

금보다 20배 더 비싸고, 2000배 더 희귀한 자원이 있을까? “있다.” 바로 ‘크리스탈린 오스뮴(오스뮴)’이다. 오스뮴은 8가지 귀금속 중 가장 희귀한 금속으로 백금 계열의 금속에 속한다. 오스뮴은 백금 채굴시 나오는 부산물이다. 1만톤의 백금에서 오스뮴 생산량은 30g에 불과하다. 오스뮴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가장 희귀한 원소로 ‘원시 오스뮴’의 양이 총 300kg 정도로 추산된다. 스위스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오스뮴 연구소에서 2026년까지 결정화 작업이 이뤄질 전망으로, 이는 총 20억유로(약 3조원) 수준이다.

한미 편약 다이어트
 제약바이오 선호도 1위
한미 헬스케어!
 여성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원료부터 차원이 다르다!
 무료상담신청 >

희소성을 갖춘 오스뮴이 최근 주목받게 된 이유는 투자자산과 귀금속으로 인정받으면서다. 독일 등 유럽 시장의 투자 컨설턴트들은 자산가들에게 오스뮴을 3~5% 포함하라고 권장한다. 유럽 부자들이 자산 목록에 들어간 오스뮴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온 사람이 이규희 오스뮴인스티튜트코리아 대표다.

이 대표는 파퓰러한 관심과 광부의 딸이다. 그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조국에 와 기쁘다고 말하면서도, 아시아에서 오스뮴을 한국에 가장 먼저 가져온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투자시장을 강조했다. 이코노믹리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오스뮴인스티튜트코리아 본사를 찾아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의미와 오스뮴의 희소성 가치에 대해 이 대표에 물었다.

한국, 투자 감각+통찰력으로 주목

이 대표는 한국의 투자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에 대한 감각과 통찰력, 다양한 수준의 럭셔리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 측면에서 시장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 최초의 오스뮴 지사를 한국에 세우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특수성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뚜렷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한국은 세계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하지만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럭셔리 마켓”이라며 “한국인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기술에 매우 정통하며, 성수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의 30%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한국 백만장자의 84%가 유형자산으로 금과 보석을 투자했다”면서 “2022년 어느 시점에 한국인은 럭셔리 제품에 1인당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국인의 특수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인은 해외의 새로운 제품을 환영하는 열려있어답티이기도 하다”라며 “특히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 한국에서 오스뮴을 응용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오스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오스뮴인스티튜트는 독일 본사부터 최근 몇년간 투자자산을 넘어서 주얼리로서 오스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평평한 형태의 오스뮴은 높은 밀도, 위조 방지 기능 등을 갖춰 명품 시계 및 주얼리 업계에서 고급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다. 오스뮴은 주얼리 외에도 DJ 헤드셋, 바이올린 장식 등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 바이올린의 경우 500개가 넘는 오스뮴으로 디자인돼 60억원을 호가한다.

결정화, 안전·희소성 두마리 토끼 잡아

오스뮴의 위조 방지 기능은 다른 귀금속과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다. 오스뮴은 스위스 연구소를 통해 10년 동안 순도 99.9995% 이상의 일관된 결정화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뮴의 결정화 작업은 순수하고 고품질의 원재료인 원시 상태의 오스뮴 스펀지로만 가능하다. 각 결정 구조는 인간의 지문보다 더 정확해 모든 조각이 문서화돼 식별 가능하다.



이규희 오스뮴인스티튜트코리아 대표. 사진=김연정 이코노믹리뷰 객원기자

결정화된 오스뮴은 전 세계에 유통되기 전에 암호화된 오스뮴 식별 코드로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각 오스뮴의 결정 표면이 3D 이미지 스캔을 통해 기록되는 구조다. 소비자는 큐알 코드로 간편하게 ‘오스뮴 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 조각의 HD 스캔을 포함해 오스뮴 디스크의 무게, 크기, 모양 및 접촉한 날의 순환을 가격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들을 통해 개인 간 재판대 상황에서도 오스뮴 조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지문처럼 모두 다른 오스뮴 결정화는 디지털 기술을 만나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이 대표는 “오스뮴 오픈 변경 코드로 추가 보안 수준이 설정되어 있다”며 “이 코드는 소유자에게만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돼 재판대 상황에서 오스뮴 디스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오스뮴과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는 유형 자산과 디지털 보안의 결합을 의미한다”며 “이 디지털 보안 프로토콜은 귀금속 산업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금보다 꾸준히 성장하는 오스뮴

투자자산으로서 오스뮴의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 기조다. 이 대표는 금이나 비트코인, 해외 부동산 등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오스뮴이 아직 초기 시장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대표는 “금과 함께 수세기 동안 화폐 등 동전이나 보석으로 자리 잡아 당당 사람들은 금이 더 익숙해 가치 높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오스뮴은 금보다 약 2000배 더 희귀하고 평균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 금보다 20배 더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 신용카드 크기의 오스뮴은 5만7000달러(76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치가 있고 보관하기도 쉽다”며 “2017년 이후 오스뮴은 g당 가격이 두배 이상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금은 경기 변화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하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국제 정세가 전쟁 등으로 불안할 때 금값이 오른다. 이 같은 이유로 금값은 1980년대 오르고, 1990년대는 내렸다. 10년 단위로 추세내린 셈이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테러, 세계 각국 재무위기,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 지속해 상승 추세다.

반면 오스뮴은 2017년 이후 가격이 두배 이상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g당 516유로에서 현재는 1360유로 수준이다. 이는 7년간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뮴 투자자들은 ▲유망한 귀금속 시장에서의 ‘조기 매수’ ▲가격 변동성이 적은 부분 등에 투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스뮴의 가격 조정이 주식 시장 조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다른 귀금속과 비교했을 때 견고한 장기적 유형 투자 자산으로서의 명성이 강화된 영향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스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라며 “실생활에서 오스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오스뮴인스티튜트코리아는 올해 9월 다양한 오스뮴 디자인을 선보이는 단독 전시를 기획했다. 전세계에서 제작된 다양한 오스뮴 시계, 주얼리, 액세서리를 공개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형투자 자산으로서의 오스뮴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미 편약 다이어트
 제약바이오 선호도 1위
한미 헬스케어!
 여성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원료부터 차원이 다르다!
 무료상담신청 >

AD

- 로또 1135회, "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당첨번호 발견..!?
- 허리협착증 통증, 집에서 "이것" 하는게 병원만큼 효과적!!
- 로또 낙첨용지 틀렸다고 버리지마! 뒷면 "QR코드" 속 당첨번호 보여..!?
- 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보니 1등 번호가!? 6, 22...
- 로또용지 "뒷면" 자세히봐라! 98% 모르는 당첨번호 나와있어 꼭 확인해라!

